

정읍시 ‘인구 10만 사수’ 총력전

11월 9일 기준 10만753명
전입지원금·이사비용 지원 등
전입 유도 맞춤형 혜택 제공
캠페인 통한 공감대 형성 촉진

정읍시가 인구 10만 사수를 위한 ‘인구사랑 범시민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읍시는 ‘시민이 힘이다! 정읍의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진행하고 있는 ‘인구사랑 범시민운동’을 생활인구 월 50만명 달성과 인구 10만명 유지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정읍시의 인구는 지난 9월 기준 10만753명이다. 이번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주민 전입을 유도하는 ‘정읍애(愛) 주소갖기’ ▲사계절 체류 인구를 늘리는 ‘정읍애(愛) 머무르기’ ▲외국인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정읍애(愛) 함께살기’ 등이다. 시는 전입 장려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 지원책으로는 ▲세대원 1인당 15만원의 전입지원금 ▲연 50만원의 전입 대학생 거주비용 ▲최대 50만원의 전입 청년 이사비용 지원 등이 있다.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첫째 200만원부터 ▲첫째 이상 1000만원까지 지급되는 출생 축하금 ▲59개월 이하 영유아 대상 월 20만원의 육아수당도 주목받는 지원책이다.



정읍시 관계자들이 정읍여고를 찾아 '인구사랑 범시민운동' 릴레이 캠페인을 펼쳤다. <정읍시 제공>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연 최대 300만원씩 최장 10년 동안 지원하는 보증자리 이자 지원사업도 시행해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읍여고, 정읍고, 학산중 등 ‘인구사랑 범시민운동’이 교육 현장으로 확산하며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을 촉진하고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인구 감소 문제는 행정기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지역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교육기관들의 참여는 교직원과 학생들이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역 공동체의 소중한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시, 디지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시작

496개 스마트 경로당, 화상회의 시스템 통한 교육 콘텐츠 보급

남원시가 ‘스마트 경로당 구축사업’을 통해 지역 경로당을 노인층의 건강과 일상을 책임지는 첨단 디지털 돌봄 거점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남원시는 최근 ‘어르신 행복공간 스마트 경로당 구축사업 완료보고회’를 열고 지역 496개 스마트 경로당이 대상인 디지털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가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스마트경로당이 지역사회 맞춤형 복지 서

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도록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건강관리와 여가·소통, 안전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 운영 면에서는 서비스의 질적 고도화와 이용 편의성 극대화에 방점을 두고 역량 집중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구축된 스마트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정기적인 소통 프로그램과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보급한다. 특히 핵심 기능인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자 시범 운영 중인 비대면 진료와 처방약 전달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속하고 관내 참여 의료기관을 확대해 의료 접근성까지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자 중심의 플랫폼 기술도 더욱 고도화할 방침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고도화 작업까지 마무리되면 이제 스마트경로당은 지속 가능한 ‘남원형 디지털 돌봄 모델’의 표준이 될 것”이라며 “이를 완성해 갈 수 있도록 내년까지 플랫폼 고도화와 서비스 안정화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시, 취약계층 안전 지원 행정 ‘우수’

방범 시설물 설치로 사회적 약자 보호 기여 인정

범죄 취약계층의 안전을 지원하는 전북 정읍시의 행정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읍시는 전북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사무 평가’에서 정읍시의 ‘취약계층 대상 방범 시설 지원사업’이 높이 평가돼 우수시군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평가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의 자치경찰사무 추진 실적과 각 지자체의 주요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상위 3개 우수 시군을 선발했다. 시는 이번 심사에서 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범 시설물 설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단순 시설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읍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맞춤형 범죄 예방 진단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치안 문제를 내 가족의 안전 문제처럼 여기며 세심하게 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라며 “경제적 사정 때문에 주거와 안전 분야에서 생활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시 ‘지방하천 제방정비 평가’ 우수

전북도 14개 시·군 평가...축제·호안·하수도 등 유지 관리 호평

남원시가 전북도 주관하는 ‘2025년 도 지방하천 제방정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지방하천 458개소 약 2865km 구간을 대상으로 지방하천 관리 상태를 종합 평가했다. 주요 평가 항목은 ▲축제 정비 ▲호안 정비 ▲하도 정비 ▲하천 시설물 정비 ▲보 정비 ▲수해 복구 ▲하천 유지보수 등으로 전반적인 지방하천 제방 정비 관리 상태를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평가했다. 남원시는 효율적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하

상 퇴적 토사 및 지장 수목 적극 제거, 독마루 정비 등을 통해 쾌적한 하천환경 유지와 사전 재해예방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또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정기적 단속 및 계도를 시행한 점도 호평을 받았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앞으로도 하천 준설, 하상 정비, 독마루 정비를 통해 이상 기후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 및 치수 안정도를 높이고 정비가 시급한 구간은 선제적 조치로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고창군-흥덕농협, 농가 일손 해결 협력

개절근로자 유치 국가 확정·숙소 확보 사전 절차 마련



고창군이 흥덕농협과 ‘2027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은 계절근로자 유치 국가 확정·숙소 확보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군은 선운산농협, 대성농협 등 지역농협과 함께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운영해 왔다. 이번 협약으로 흥덕농협이 합류, 군은 총 3개 지역농협이 협력해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흥덕농협은 2027년 개소 예정인 북부권 농업근로자 기숙사 개소에 참여할 예정이다. 고창군은 권역별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단계적

으로 조성하고 있다. 작년 5월엔 남부권 농업근로자 기숙사가 전국 최초로 개소했다. 내년 2월에는 중부권, 오는 2027년 2월에는 북부권 기숙사가 문을 연다. 서부권·읍내권 기숙사도 순차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백영중 흥덕농협 조합장은 “북부권 기숙사 개소와 함께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속력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인력난 해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권역별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과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사업을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고창군 ‘농촌 서비스’ 시범지역 선정

주민이 직접 사업 계획·공급

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촌 서비스 협약’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농촌 서비스 협약은 지역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사업 등을 직접 계획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일반 공모사업과 달리 서비스 제공 대상인 공동체가 계획 단계부터 참여해 현장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고창군은 내년 상반기 공동체별 서비스 수요와 우선순위를 파악해 공급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어 하반기에는 각 공동체와 협약을 체결한 뒤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협약 종료 후에는 수혜 규모, 사업 간 연계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성현섭 고창군 농촌활력과장은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협력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디케이 주식회사

공 기 의 새 로 운 정 의
공 간 을 빛 내 는 선택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건
우리 집 공기의 깨끗함입니다.
늘 깨끗한 집, 늘 건강한 삶.

모든 순간을 더 건강하게
디케이 공기청정기·살균기

www.e-dk.co.kr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

